정읍근현대사연구회 종교문화 탐방

"정읍은 우주의 단전이요, 지구의 축이요, 한반도의 배꼽이다."



무극대도 영대 건물(현재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경주이씨 재실로 사용됨)

■ 답사 장소: 관내 일원(신정동-입암-북면-태인-덕천-정읍)

■ 답사 일시: 2016.4.30(토) 09:00~17:00

■ 참석 인원: 인문학강좌 2기생, 기적의 도서관, 정읍N사람, 예닮교회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유)차샘, 증산도 연지도장 등 30명

■ 답사 안내: 김재영·서혁기·안후상·이상섭·이진우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정읍근현대사연구회 종교문화 탐방

"정읍은 우주의 단전이요, 지구의 축이요, 한반도의 배꼽이다."



무극대도 영대 건물(현재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경주이씨 재실로 사용됨)

■ 답사 장소: 관내 일원(신정동-입암-북면-태인-덕천-정읍)

■ 답사 일시: 2016.4.30(토) 09:00~17:00

■ 참석 인원: 인문학강좌 2기생, 기적의 도서관, 정읍N사람, 예닮교회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유)차샘, 증산도 연지도장 등 30명

■ 답사 안내: 김재영·서혁기·안후상·이상섭·이진우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정읍근현대사연구회 역사기행

■ 답사코스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출발(9:00)-과교동 천주교 신성공소-정해마을 보화교터-농초 박문기 선생의 백학농원-신정동 대덕전-입암면 보천교 중앙본소-점심(정읍)-북면 매계교회-원불교 북면화해 제우지-태인 미륵불교와 무극대도 터(고등공민학교 자리)-덕천 강증산 탄생지-정읍 도착(5:00)

■ 천주교 신성공소(과교동)

정읍은 보천교를 비롯해서 보화교, 유일무극대도진동학제화교, 미륵불교 등이 현재도 신자수를 달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입암면 대흥리에 물법포교(찬물교/청수교)가 행해지고 있었고, 인정상관의 여처자(모악교)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입암산성 북창골에는 정씨사모파로 불리는 일명 '하늬재교'가 있었다. 이평면에 영주교(靈主敎)가 있었고 영원면에는 은세룡(殷世龍)의 황극교(皇極敎/1926)가 있었다. 신정동 백학마을에는 현재 증산계열의 대덕전(大德殿)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읍은 가히 근대종교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신종교가 둥지를 튼 곳이었다.

천주교의 역사로 보면 정읍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공소(公所)를 가진 고난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정읍은 1882년부터 1910년까지 기록된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전라북도 천주교 공소 수는 473개가 있었다. 정읍에 73개 공소가 있었는데 이는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었다. 신성공소, 대숲골공소, 입암 등천리공소 등 일부는 여전히 교우촌(敎友村)으로 남아 있다.

이밖에도 정읍은 증산교(甑山敎)를 비롯한 보천교, 보화교, 미륵불교 등 각종 신종교가 발생·수용·확산된 지역으로 종교적 '장소성'과 '상징성'이 아주 강한 지역이다. '종교박물관'을 건립하고 '종교순례길'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신성마을은 1882년(?) 천주교 박해를 피해 전주 지방의 교우 중 일부가 피난 온 것으로 구전된다. 교우들은 산허리에 화전을 일구어 담배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천주교 호남발전사』(김영구)에 의하면 1903년 프랑스 맹 미알롱(맹석호) 신부가 부임하여 16년간 포교활동을 하면서 부근에 기와굽는 공장을 설치하여 여덟 칸의 성당과 네 칸의 사제관을 짓고 아래쪽에는 여섯 칸의 사랑채를 건축하였다. 맹신부는 인근 순창을 비롯하여 고창, 부안, 장성, 담양 등 지교회 36개를 설립했다고 한다.

현재 성당건물은 없어지고 사제관에 해당하는 건물을 성당으로 활용하여 미사를 보고 있다. 사제관 왼쪽의 부속건물은 사랑채 역할도 하고 외지 교우들의 숙소로 제공되기도 했다. 6·25전쟁 때 인민군 치안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폭격을 면했다고 전해진다. 사랑채는 주민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으로도 이용되었다.

추녀 끝을 덮는 기와에는 천주강생(天主降生) 1917년이란 명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기와를 제작한 연대로 보고 있다. 성당은 그 뒤 선은동으로 옮겼다가 시기동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사제관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등천리 공소(입암 등내 마을)

공소는 정식 교회조직의 하나로 작은 단위의 교회를 지칭하는데,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준 성당의 성격을 띤다. 평소에는 신부 대신에 공소회장을 중심으로 공소예절이 행해지며, 신부는 1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판공성사(判公聖事)를 주게 된다. 판공성사는 신도들이 1년에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판공은 일종의 신앙점검이며, 판공성사 때 찰고(察考) 즉 교리시험을 가졌다. 그러나 봄 판공 때는 대개 찰고를 하지 않고 가을 판공 때 교리문답을 찰고한다. 찰고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 판공 시기는 부활 대축일(성모승천) 전과 성탄 대축일 전이다.

등내 마을은 정읍에서 남쪽으로 약 10㎞ 떨어져 있으며 신등(新登), 원등(原登), 군령(軍令)을 포함한 마을로 입암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등천리 공소는 조화서, 조윤호 성인의 치명 사적을 소상히 아는 조프란치스코가 살았던 마을이며, 근래에는 범석규 신부를 배출할 만큼 천주교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1895년 라크루(Marcellus

Lacrouts, 馬瑪瑟) 신부가 판공을 치를 때 19명의 신자가 살고 있었으며 포교소는 1920년에 설치가 허가되었다. 공소는 1895년에 세워졌으나, 6·25 전쟁 때 인민군의 앞잡이들이었던 빨치산들에 의해 소실되었다.

등내 마을은 현재 28가구 가운데 10가구가 천주교 교우들이며 여전히 신심이 강하다. 그러나 『봉남일기(鳳南日記)』에 의하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동학 접주를 배출했을 만큼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마을이었다. 이런 마을에 1895년 천주교 공소가 건립된 것이다. 설립 당시 19명이었던 교우수는 이듬해 64명으로, 1904년에는 139명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신자가 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천주교 입교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즉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등내 마을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이후 농민군들이 다른 곳으로 전부 이주했을 수도 있으나, 이동이 없었다면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서양세력에 의탁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임시 입도한 자 뿐만 아니라 소위 오랜 도인이라 칭하는 중에도 그 본지를 잃어버리고 무뢰배와 합류한 자도 적지 않았으며, 관리나 양반이나 소리나 사졸배로서 동학당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하루아침에 표변하여 도로 동학당의 원수가 되었던 경우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순천 송광면 낙수동의 이사유(李士維)는 본래 부자였는데 갑오년에 접주로서 평민을 침학하여 더욱 부자가 된 자였다. 그는 농민군이 패배로 기울자 잽싸게 민보군에 붙음으로써 여전히 토호로서의 존재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창의 강성지(姜成之)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부는 천주교인 행세를 하고자 천주교도들로부터 십자가와 같은 성물을 얻어 가지고 다녔으며, 천주교의 주요 기도문인 12단(端)을 외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민군들의 호신책 외에 전라감사는 농민군의 재봉기를 막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민들이 동학을 비롯한 외부의 침투에 동요하지 않도록 교화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농민군 출신들이 천주교에 입교하면 품성이 교화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1895년 등내 마을에 있었던 19명의 천주교 신자는 이와 같은 농민군들의 호신책과 전라감사의 회유책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정읍의 뿌리, 정(井)자 형 우물과 보화교(정해마을)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정읍현 남일면 정해리로 기록되어 있어 성촌연대를 정조 이전으로 올려 볼 수 있는 마을이다. 일명 '샘바다'라고 한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정자형 우물의 '큰 새암'이 있었다고 한다. 촌로들에 의하면 옛날에 이곳이 바다였다는 구전이 있으며 풍수지리설로는 마을 지형이 배의 형국으로 가정에서 우물을 파면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형태이고,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리면 배가 침몰된다는 논리에 따라 근래까지 가정에 우물이 없었다.

100여 가호가 사는 대촌에서 생활용수를 이 우물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큰 새암'이라 한 것이다. 1973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길 포장공사를 하면서 예전의 위치에서 우측으로 약 5미터 정도 이전되어 있던 것을 정읍의 상징 우물로 삼고자 1994년 7월 원래의 위치에 우물을 복원하고 주변도 기와를 얹은 담장으로 깨끗이 정비하였다.

마을 입구에는 수령이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마치 네 그루의 나무를 합친 것 같은 기묘한 형태로 되어 있다. 숙종 때 안국주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정해에 내려온 기념으로 심었다 하며, 옛날에는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나무에 새끼를 감아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다 한다.

정읍은 정해 마을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정해 마을에 있는 셈이다. 현재 탐진 안씨가 주성을 이루고 있다.

보화교(普化敎)의 창시자인 청강(淸江) 김환옥(金煥玉)은 25세 되던 1921년 보천교에 입교했다. 간부인 수방(水方) 문정삼(文正三)의 12임(任)으로 있다가 1930년에 탈퇴하고 서상근(徐相根)을 만나 수운과 증산을 통합하는 교리를 깨달았다 하며 스스로 금강대신(金剛大神)이라 일컬었다. 1933년 겨울 경남 하동군 청하면 학동에 교단을 설립하고 포교하다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투옥되었다. 1935년에는 독립운동 혐의로 거창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광복 후 출옥하여 자기 집(정읍군 칠보면 백암리)에 돌아와 교당을 짓고 감옥에서 만난 김교헌(金敎憲)과 함께 '무극대도보화교'(無極大道普化敎)라는 간판을 내걸고 포교했다.

1954년 청강이 사망하자 뒤를 이어 남정선(南井仙)이 1956년에 본부를 현 위치인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로 옮겼으나 그 역시 1957년에 사망했다. 그 후 김명환(金明煥)이 교권을 장악, 3대 교주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보화교의 발전과정에서 두 분

파가 파생되었는데 1959년에 이한우(李瀚雨) 등이 진동학제화교(眞東學帝和敎/금붕동)를 세워 나갔고, 1969년에 권호중(權呼中)이 태종보화교(太宗普化敎)를 만들어 분립했다. 보화교 본부가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청강의 손자며느리인 김갑숙과 청강의 조카인 김흥기(2003년/79세), 김낙기(71세)가 살고 있다. 손자인 김봉전은 10여 년 전에 사망했다. 당시 신자들 대부분이 마을을 떠나고 여수에서 18세 때 이곳 백암리로 이주해 교당 내에서 생활했던 최낙순(77세)만 남아 있다.

백암리 본당에는 중앙에 연화대가 있었고, 동쪽에 옥경대와 일광사, 서쪽에 대현사, 복록궁이 있었다. 연화대 뒤에는 수명궁이 있었고, 주위에는 신자들을 위한 여러 채의 가건물이 있었다. 옥경대에 있었던 3개의 탑 가운데 하나는 현재 본터(중남파)에 남아 있고 하나는 샘바다(정해마을/삼남파)마을로 옮겼으며, 하나는 원평 본부(장남파)로 이전되어 있다.

정해마을 보화교 본당에는 동쪽에 집회장소인 통정원이 있고 남쪽에 용천각, 서북쪽에 수일각, 북쪽에 수련장인 대현정이 있다. 대현전 앞뜰에는 백암리 본당에서 옮긴 탑이 모셔져 있다.

■ 최영단 여사와 백학농원(신정동)

정읍은 풍수지리 상 종래의 길지 기준으로 보아 매우 꺼리는 남출북류(南出北流) 배산임수(背山臨水)라는 대표적인 역세형국(逆勢形局), 변혁적인 땅이다. 더불어 정읍은 시내를 중심으로 두승산(斗升山)·방장산(方丈山)·입암산(笠岩山)·내장산(內藏山)·칠보산(七寶山) 등이 에둘러 있어 오행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그러면서도 정읍은 샘골이므로, 생명의 근원이자 우주의 배꼽이며, 여성의 근원이기에 후천개벽을 잉태한 곳이라고도 하고, 증산이 말했던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비기의 예언이 실행될 곳이라고 한다.

특히 입암산의 '입(笠)'은 '관(冠)'이므로 이 땅은 반드시 왕이 나오는 곳이라 했으며, 입암산 줄기인 삼성산(三聖山)은 성인 셋의 출현을 상징한다. 또한 정읍은 물이 많아서인지 정읍 전체를 배의 형국으로 보기도 하며, 이 경우 삼성산(三聖山) 정상 쪽이 뱃머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박문기의 백학농원이 삼성산 자락에 자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보천교에서는 십일전 건물 안에 성탑(聖塔)과 입암산·삼성봉·방장산을 그린 벽화를 함께 봉안했다. 바로 정읍 주변의 산들을 신앙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듯 입암산과 삼성산은 신비스럽고 종교적인 지역이었다.

정읍은 풍수상으로는 배가 떠다니는 '행주형(行舟形)'이라고 풀이하면서도 오행이 상생하는 곳이라고도 한다. 삼성산(三聖山) 정상이 뱃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니 이곳이 바로 정읍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이다. 방사선 연구소와 생명과학연구소 등의 국책기관이 들어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풍수지도'를 작성하여 관광자원화해야 할 일이다.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최영단 여사

1979년 초반부터 신문, 방송, 주간지에 요란스레 오르내리던 '만병통치의 여인'이 바로 정읍의 최영단(崔榮丹) 여사이다. 최영단은 치병행각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두 번이나 진 일이 있다. 1960년대 초반 전국 각처에서 매일 1천 여 명 씩 인파가 몰려들어 철도당국은 간이역인 천원역까지 특별차량을 연결해 주었다. 경찰은 미신조장의 우려가 있다 하여 1963년 3월 최영단을 '사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으나 공소유지가 안 돼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 1979년 4월 16일 정읍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최영단을 20일간 구류에 처한 일도 있었다.

최영단은 경북 군위군 우보면 뚝골에서 조부 때부터 보천교를 신앙해 온 집안에서 태어났다. 최영단이 3세 때 경북 영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5살 때부터 웬일인지 손가락이 모두 오그라들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동리 사람들은 조막손이라니, 병신 손이라니, 원숭이 손이라고 놀려댔다. 그 무렵에 정체불명의 할머니가 나타나 영단의 손을 만져주었는데, 하루에 한 개씩 새끼손가락부터 펴지기 시작해서 10일 만에 열 손가락이 모두 펴졌다 한다. 그 후 일곱 살 때 정읍으로 이사를 왔으나, 가난 때문에 다시 대구로 이사를 하여 14세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제사공장의 여직공으로 취직이 되어 생계를 돕다가 17세 때 한 팔이 없는 총각을 소개받아 결혼을 했다.

최영단이 33세 때의 겨울 어느 날이었다. 아침 10시께 혼자 방문 앞에 앉아 있는데 마당에 푸른 안개 같은 것이 끼고 그 안개를 보료로 삼아 영단이 어릴 때 찾아오던 정체불명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거기에는 겨울인데도 무지개가 뻗어 있었다. 그러한 환상은 4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 박씨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후에 최영단의 집에 놀러와 밀국수와 고구마 찐 것을 나누어 먹은 동리사람들이 신통하게도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자신의 환상과 남편의 이상한 꿈은 필시 자신이 무당이 될 팔자인가 싶어 무척 고민을 했다고 한다. 최씨 가문에는 대대로 무당이 없었던 터이라, 자신이 무당이 된다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친척들로부터 사람취급을 못 받는 것이 두려웠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창피스러워 무당이 될 바에야 죽어버릴 결심을 몇 번씩이나 했지만 잠든 어린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자살할 용기가 싹 가시곤 했다.

아무튼 최영단이 본격적으로 병을 고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도로 최영단의 집에서 물이나 음식을 얻어먹은 사람 중 환자들이 우연치 않게 병이 나았다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자 그 소문이 원근 각지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 최영단은 환자의 얼굴과 눈을 주시하면 그 환자의 통증이 자기 자신의 체내에 느껴지므로 환자의 아픈 곳을 알아낸다고 한다. 자기 자신과 환자와의 심적 교통을 하면서 환자를 낫게 위로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며 생전에 이러한 현상을 본인도 의아해 하였다.

■ 대덕전(신정동)

신정동 백학마을에 있으며, 대덕전 내에는 중앙에 증산을 상징하는 미륵불과 오른쪽에 관운장, 왼쪽에 진묵대사를 모시고 있다. 미륵불을 모신다는 것은 미륵의 화현(化現)인 증산을 모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덕전은 증산교의 한 일파임을 알 수 있다. 증산교를 믿는 교인들이 그렇듯 진묵을 숭배하는 이유가 『대순전경(大巡典經)』에 잘 나타나 있다. 일찍이 증산은 진묵에 대해 "최수운은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암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利瑪竇)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며,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케 하느니라."하여 불도의 종장을 삼은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덕전을 찾는 사람들은 고혈압, 동맥경화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며, 전국적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들을 원장은 '기혈온신치료'로 병을 다스리고 있다. 경내 시설은 1992년에 착공하여 1997년에 완비하였다.

특히, 이곳에는 황토 온돌방과 병든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15개(백호 갑·을·병·정·무, 주작 갑·을·병·정·무, 청룡 갑·을·병·정·무)의 방과 식당을 갖추고 있다. 경내의 건물은 완치된 이들 환자들의 성금으로 건축된 것들이다.

■ 보천교 중앙본소(입암면 대흥리)

증산 사후 자칭 600만 교도를 자랑할 만큼 증산교계 종단 가운데 가장 교세가 컸던 종교가 바로 보천교였다. 보천교는 1909년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에 의해 창시된 신종교로 한국종교 사상 유례 없는 극적인 흥망을 보여준 종교다. 그 극적인 과정이 불과 10년 안에 일어났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직후에 급격한 성장을 시작하여 1922년에 거대한 보천교 성전을 착공하고, 1923년에는 수십만의 신도를 가진 사실상 한국 제일의 종교로 우뚝 일어선 것이다.

보천교는 교세가 확장되자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으며, 언론출판사업의 일환으로 1923년 10월 월간지 『보광』(普光)을 창간하고 보광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했다. 이어서 당시 말썽 많았던 『시대일보』(時代日報)를 인수했다. 또 자급자족을 위해 입암면 대흥리에 직물공장과 염색공장을 세웠으며, 갓공장, 농기계공장도 세웠다. 대중문화운동으로 100여 명으로 편성되는 대규모의 '보천교농악단'을 조직하여 풍물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오늘날 정읍농악이다.

1924년에는 보천교 내에 '기산조합'(己産組合)을 조직하여 수공업을 통한 산업진흥을 도모했다. 한편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보천교 청년단'을 조직하고 여성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 '보흥여자사립수학'을 설립했으며 '보천교 소년회'를 조직하는 등 신교육과 소년운동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밖에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민립대학설립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일본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천교의 '천자등극설'은 3·1독립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민중을 일거에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천자등극설은 비록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었지만, 민중의 정치운동이요, 조직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주도하려는 현실정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천교는 1925년 '시국대동단'을 결성함으로써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식민지 정책에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을 갖게 되었고, 민족종교인지, 사이비종교인지 갸웃하던 일반의 인식에 보천교는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을 굳히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시국대동단은 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의 일부 인사가 떨어져 나와 보천교와 합작하여 조직한 단체로 강령은 '내선인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고, 대동단결하여 문화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시 세간에서는 "보천교는 '제2의 각파유지연맹'이며, 종래 일종의 의문으로 주목받던 보천교가 금번에 친일로 태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라는 풍문이 있었다.

이와 같이 친일과 항일의 양면성을 띈 보천교 운동은 근대적 민족의식이 없었고 조선총독부와 도시 지식인들의 협공으로 인한 노선의 혼선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보천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억압 하에서도 기구를 조직하고 웅대한 교전을 축조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건물 일체가 모두 해체되었다. 그러나 성전 건물인 십일전은 현재 조계사 건물로 복원되어 있으며, 북쪽에 위치한 정문인 보화문은 내장사 대웅전으로 복원되었으나 최근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일부는 일제가 민족의식을 가진 보천교를 탄압하면서 건물을 장작으로 뜯어서 팔기도 했다.

교리는 인의(仁義)이며 4대 강령이 경천(敬天/일심으로 공경하여 천은에 보담함).명덕(明德/착한 일을 행하며 스스로 자기의 덕을 밝힘).정륜(正倫/인도를 바로잡고 행함).애인(愛人/내 몸을 아끼듯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다. 상생(相生)이 주의이며, 전세계가 대동단결하여 평화, 공존, 공영의 세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대동(大同)을 목적으로 한다.

보천교가 본소를 입암면에 두고 있는 것은 5행사상과 『정감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입암산은 토체형국으로 오행 중 중앙에 속한다. 『정감록』 무학비결에는 "진사군하거(辰巳君何去) 오미낙당당(午未樂堂堂) 청의자남래(靑衣自南來) 사승즉비승(似僧則非僧)" 이라 하여 "진사년에 임금은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오미년의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푸른 옷을 입고 남쪽으로부터 올 것이니 승려인 듯 하나 승려는 아니로다." 라고 했다. 보천교 본소가 있는 입암면 대흥리는 정읍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푸른 옷을 입고 남쪽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결부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자칭 600만 신도를 자랑하는 보천교가 입암산 아래 대흥리에 자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촌노들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접지리가 아닌 현재의 대흥리라는 지명은 보천교가 흥

하던 시기 이후부터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본래는 평산 신씨(5호)가 터를 닦은 중흥과 연안 차씨(5호)가 자리 잡은 진목, 그리고 김해 김씨(5호)들이 입주한 신평을 합한 한가로운 마을이었다고 구전된다. 그런데 보천교가 자리하면서 15호에 해당하는 한적한 마을이 갑자기 700여 호를 헤아리게 되면서 마을이 크게 흥하라는 뜻에서 '대흥리'로 불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최중진 목사의 매계교회(북면)

최중진(崔重珍)은 고부출신(덕천면 상학리)으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다가 개신교로 전향한 인물이다. 최중진 목사 3형제는 호남지방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맏형인 최중진은 전북 지방 최초의 장로로 장립(將立/안수목사가 선정된 신자에게 장로의 교직을 주는 일)을 받았고, 이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호남지방 첫 목사가 되었다. 동생 광진(洸珍)은 전주 서문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으며, 막내 동생인 대진(大珍)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일제강점기 시베리아 지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러시아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중점적으로 목회한 지역은 정읍시 태인면 매계리에 위치한 매계교회였다. 그의 전도 활동에 힘입어 1900년 매계교회가 세워지고, 1903년 화해교회가 설립되었으며 1904년 천원교회가 창립되었다. 매계교회는 2000년 10월 3일 100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ㄱ'자 모양으로 세워졌던 설립 당시의 교회는 6·25전쟁 때 공산당의 방화로 수리를 한 뒤 1968년 예배당 신축 때 구 예배당을 철거했다. 현 교회건물은 1991년 9월 신축(86평)한 것이다. 1998년 10월 김옥경 목사에 의해 1968년 신광교회로 개명되었던 교회명칭을 매계교회로 다시 원상 복귀시켰다(「정읍신문」, 2000년 10월 4일).

최중진 목사는 매계교회를 근거로 천원 제일, 북면 화해, 고부 구중, 화호, 정읍 제일, 고창, 흥덕, 동호, 신촌, 부안, 관동 줄포, 진성동 줄포 제일교회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는 호남지방 교회 개척의 선구자였으나 자신이 세운 교회는 선교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겠다는 '자주교회 사건'으로 제명되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천민들을 모아놓고 인간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형평운동(衡平運動)을 전개하였다.

*소성면 애당리 두암교회 생략

■ 원불교 화해제우지(북면)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1891-1943)의 대각(大覺)에 의하여 창립된 종교이다. 원불교란 교명은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상징한 '원(○)'과 깨닫는다는 의미의 '불', 가르친다는 '교'로써,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의미를 지닌다.

교조 박중빈은 1891년 3월 26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정식 학교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으나, 우주만물과 인간만사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산을 찾아 기도하는가 하면 산신과 도사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삼매(三昧/정신의 몰입상태)에 빠져들곤 하였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26세 되던 1916년 4월 28일 새벽에 동쪽 하늘의 서광을 보고 문득 대각을 이루게 된 것이다.

대각을 이룬 소태산은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응보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 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하며, 마음속으로부터 기쁜 희열을 느꼈다. 그는 과거 성현들의 가르침을 알아보기 위해 각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불교의 『금강경(金剛經)』을 보고 석가모니불을 성인 중의 성인이라고 극찬하게 된다. 소태산은 자기가 도를 얻게 된 경로나 도달한 궁극적 경지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슷하기 때문에 장차 불법(佛法)으로 주체를 삼아 새로운 종교를 창립하리라고 하였다.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는 한마디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근본적인 진리에 있어 불교와 원불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외형상 신앙대상의 상징을 기존의 불교계와 달리하고, 교단의 운영방식과 제도면에 있어서도 종래의 사찰제도와 달리하고 있어 새로운 교단으로 볼 수 있다. 소태산 박중빈은 불교 혁신을 주창하고 있으며, 그 혁신의 표준을 시대화·생활화·대중화로 밝히고 있는 데서 원불교와 불교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원불교란 교명이 소태산의 대각 당시부터 바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때까지의 역사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교의 초기로 아무런 교명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이다. 이 시기는 1916년부터 1918년까지로, 이 기간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홉 명의 제자를 뽑아 이들과 함께 초기 교단의 기초를 다졌다. 1917년 저축조합을 만들어 근검저축, 허례폐지 등의 생활혁신을 꾀하는 한편 상당한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자금으로 1918년부터 1년 간 그는 백수읍 길용리 앞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는 방언공사를 단행하여 2만 6천여 평의 농토를 마련함으로써 원불교 창립의 경제적 기초를 다졌다.

둘째,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 칭하게 된 기간이다. 이 시기는 1919년 4월부터 1924년 4월까지이다.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소태산은 그의 9인 제자들에게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할 대종단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진리계의 허락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허락을 받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한다. 9명의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에 임한 결과, 백지에 대고 인장을 찍었는데 빨간 혈인(血印)이 나타난 소위 '백지혈인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건은 교조 박중빈과 그의 제자들에게 진리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교단 창립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중요한 일로 교리의 초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1920년 소태산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에 들어가 5년 동안 교리초안을 완성하고 사방의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셋째, '불법연구회'라 칭하게 된 기간이다. 이는 1924년 4월부터 1947년까지이다. 1924년 4월 소태산은 본부를 전라북도 익산시 신룡동의 현 총부 위치로 옮겨 「불법연구회」라는 간판을 걸고 본격적인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모여든 제자들과 함께 낮에는 6만여 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원예·채소, 양잠·양돈·양계, 약초재배 등 산업을 장려했고, 밤에는 그들에게 종교이념에 바탕 하여 도덕과 윤리로서 정신훈련을 시켜나갔다. 이것은 그가 실현하려고 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었으며, 영육쌍전(靈肉雙全)·이사병행(理事竝行)의 실천이었다. 이러한 훈련방식은 이에 참여한 모든 이로 하여금 새 시대의 종교인상, 새 지도자상을 정립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 기간의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1926년에는 「신정의례준칙(新定儀禮準則)」을 제정·공포하여 당시 유교의 낡은 예법을 과감하게 개혁한 일을 들 수 있다. 또 1935년에 산업기관으로 약업사 '보화당(普和堂)'을 개설한 것과, 1940년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면 수계리에 대농장을 건설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1943년 소태산에 의해 원불교의 기본경전인 『불교정전(佛敎正典)』을 완성한 일을 들 수 있다.

1943년 6월 1일 소태산은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정산(鼎山) 송규(宋奎/1900-1962)가 2대 종법사로 취임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정산은 전재동포 구호사업·교육사업·한글보급운동 등을 건국 3대사업으로 정하고, 서울·익산·전주·부산 등지에 구호부를 설치하여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들에게 밥을 먹이고 의복을 주고 병을 치료해 주는 구호사업과 사상강연 등을 실시했다. 또한 1946년에는 교육입국을 전제로 유일학림(唯一學林/현 원광대학교 전신)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산은 해방 후 혼란기에 종교지도자의 처지에서 『건국론(建國論)』을 저술하였는데, 이의 내용은 정국 지도의 대의 강령을 밝힌 것이다.

넷째, '원불교'라 칭하게 된 기간이다. 이는 소태산의 유시에 의하여 제2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가 교명을 원불교라 바꾸고, 1947년 4월 재단법인 원불교의 등록을 필한 후 현재까지이다. 이 기간의 원불교 종법사는 정산 송규, 대산 김대거, 좌산 이광정 등으로 바뀌게 된다.

정산은 원불교라 교명을 바꾸고, 원불교의 방향과 목표를 교화·교육·자선의 3방면으로 다시 정비하였다. 교육사업으로 1951년 종전의 유일학림 체제를 개편하여 원광대학교, 원광남녀고등학교를 만들었으며, 특수 훈련기관으로 동산선원을 만들었다. 한편 1958년 교서편수기관인 '정화사'를 발족시켜 각종 교서의 편수를 완료하였다. 1961년 정산은 소태산의 일원주의(一圓主義)를 국한 없이 터 나갈 수 있는 대동의 원리로서 동원도리(同源道理)·동기연계(同氣連契)·동척사업(同拓事業)이라는 3동윤리를 제시하고 1962년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정산의 뒤를 이어 종법사가 된 대산(大山) 김대거(金大擧/1914-1998)는 1965년에 「한국종교인협의회」 창립의 주역이 되어 각 종교 간 울을 트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종교본연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해외교화를 시작하는 한편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화합 단결하자는 「세계종교협의회(UR)」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71년 10월에는 원불교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를 열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일원세계」라는 세계 일원화의 상징 표어를 내걸고 1주일간에 걸친 성대한 기념대회를 가졌다. 반백년을 전후한 수년 동안 원불교는 적극적인 교도 불리기, 교당 불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91년 「소태산 탄신 100주년 성업봉찬대회」가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 대회는 수년 전부터 건설·학술·봉공·재정·문화홍보·행사 등의 6개 분과를 두어 각 분과마다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오다가 4월 25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 행해졌다. 특히 학술분과에서 발행한 기

념논문집과 국제종교학술회의 등 수차에 걸친 학술회의는 원불교사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94년 11월에 좌산(左山) 이광정(李廣淨/1936-現)이 제4대 종법사에 취임하였다. 좌산은 역대 종법사의 뜻을 계승하여 안으로 인재육성·체제정비·경제기반 확립 등 내실을 통한 교단 각 분야의 성숙을 이루고, 밖으로 「맑고 밝고 훈훈하게」라는 표어를 내건 새 생활운동의 전개, UR정신을 계승하는 종교교류 활동의 증대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좌산은 원불교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00년에 새롭게 교헌개정을 실시하였다. 교헌개정의 중요한 골자는 수위단회의 새로운 편성과 해외 총부를 두어 세계교화로 나가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좌산은 취임 후 특별사업으로 원불교방송국인 '원음방송국'을 개국하였으며, 정산종사탄생백주년기념사업을 통해 정산종사 탄생지의 성역화와 삼동윤리의 이념을 더욱 확산시켜 UN NGO를 통하여 21C 세계보편윤리헌장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불교의 역사 속에서 정읍은 한마디로 「만남의 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읍군 북면 화해리 마동마을에서 1925년 4월에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과 제2대 종법사인 정산(鼎山)정산 송규(宋圭)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많은 신종교 중 원불교만큼 건실한 발전을 이룬 종교는 드물다. 그것은 바로 창교자의 뜻을 살려 교단을 잘 운영한 정산 송규의 공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소태산 박중빈은 이 만남의 기쁨을 「나는 이제 근심을 놓았다. 나의 법을 전해 줄 법주(法主)를 만났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만남의 땅인 정읍지역 원불교의 역사는 역시 화해리의 화해교당에서부터 시작된다. 1938년 7월 1일 「불법연구회 화해지부 출장소」라 간판을 걸고 김해운·김도일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가, 1945년 4월 26일에 지부로 승격하였다. 드디어 1949년 4월 28일에 송자명 부교무가 부임하게 된다.

화해교당으로부터 시작된 정읍지역 원불교 교화는 1940년에 신태인 교당이, 1947년에 승부교당과 정읍교당이 생겼으며, 이로부터 용각(1954)·소성(1958)·태인(1958)·감곡(1963)·고부(1967)·칠보(1967)·덕천(1970)·장학(1975)·화호(1979)·산외(1981)·이평(1981)·초강(1981) 등지에 교당이 생겼으며, 1989년에 상동교당이 건립되었다.

■ 태인 미륵불교와 무극대도 터(태인면)

조정산(철제)은 임술(1922년)년 12월 4일 28세 되는 생일에 임원들에게 일시 중단되었던 도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무극도의 임원들이 과거에 구성된 도장 영건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그 후보지를 도주에게 물의니 "도장의 기지는 태인 도창현이 천장길방지지(天藏吉方之地)니라" 그러나 그곳에 치마바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상우 등에게 찾도록 하였다. 그들이 도주의 뜻에 가합(可合)한 곳을 물색하여 보고하매 5천 5백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하니 댓가는 벼 3백 50석이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그 때의 치마바위란 그 부지의 표면에 솟아난 바윗돌 몇 개였으나 명령에 따라 흙을 파서 대지를 정리하니 높이 약 3장(丈)에 길이 약 50칸이나 되는 성채 모양, 병풍 모양의 바위가 신기한 경관을 이루었고 대지 중앙에서는 샘물이 솟아나서 후일 수 천 명의 용수에 넉넉하였다. 도인들은 이 샘을 유천(乳泉)이라 불렀다.

1923년 3월 1일 기공치성을 올렸다. 건축 공사를 시작할 때 '진업단'이라는 노동단체를 조직하여 무상의 노동으로 봉사하도록 하였다. 병인년 9월에 본부가 낙성되니 건물은 도솔궁과 영대를 비롯하여 포정부, 정침, 사무실, 창고, 문루 등 120간에 이르는 대규모 건축이었다. 을축(1925)년 4월 15일 도장의 주요 건물인 영대와 도솔궁이 준공되고 그 밖의 건물과 시설은 다음 해 섣달에 완공되었다. 을축(1925)년 4월 28일 성전 준공치성과 영대 봉안치성을 올리기에 앞서 영대에 증산을 봉안하였다. 또한 치성 하루 전에 성전 앞 광장에 모인 수 천 명의 신도 앞에서 도의 이름을 '무극대도'라고 밝혔다.

도장에 건립한 교당의 규모를 보면 영대와 도솔궁을 중심으로 하여 회관, 사무실, 거실, 주방, 창고 등이 19동에 간수(間數)는 240간으로 건물의 구조를 보면 목조와가에 단청을 한 전통적인 고전형이었다. 도장의 동서남북 사방에 사대문을 내고 담장을 둘러치니 이와 같은 웅장한 교당과 도장을 건설하는데 공사 기간은 3년 여 소요되고, 동원된 인원이 12만 명이요, 들어간 경비가 5만여 원이었다.

영대는 48간으로 맨 위층에는 증산상제의 영위를 모시고 1층과 2층은 집회장으로, 내부는 3층이나 외부는 2층으로 되어 있다. 도솔궁은 내부 4층, 외부 3층, 모두 72간의 건물로 맨 위층은 33천을 봉안한 도솔궁으로 입춘·입하·입추·입동 네 절후날 삼십삼천에게 제사하고, 3층은 칠성을 봉안한 칠성전으로 칠성신에게 제사하고, 2층은 육정신과 제대신명을 봉안한 봉령전이라 하였는데 삼십삼천 외의 모든 천신과 지신에게

제사하고, 맨 아래층은 중궁이라 하여 도주의 수련실로 정하였다. 영대는 외면은 2층 내면은 3층인데 맨 위층은 대순절과 화천절에 천사에게 치성하고 2층과 아래층은 교간부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1936년(병자) 4월 총독부는 증산계 각 교단에 대 폭압령을 내렸다.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국내의 사상통제를 강행할 때 증산계 신도는 민족의식을 고집하는 준민족운동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정읍경찰서장은 수 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도솔궁과 영대 등 건물을 불과 수 천 원씩에 경매하여 뜯어버리니 도솔궁과 영대는 부안사람 김상기가 뜯어다가 선대 묘소 재실로 개축하였다. 목조기와 형태인 영대의 2층을 뜯어다가 지은 이 건물은 본래 내부는 3층이나 외부는 2층인 총 48간의 건물이었다. 도솔궁은 역시 고전 건물로서 내부는 층이나 외부는 3층인 총 72간의 건물로 3층은 변산 내소사에 팔려 종각으로 개축되었으나 나머지 19개 동 총 120여 간의 건물은 모두 철거하여 산매되었다.

정산이 태인도장을 은밀히 떠난 뒤 임원 등은 매일 수 백 명씩 도장으로 찾아오는 신도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느라 애를 썼다. 신도들이 몇 백 명 모이니 당국에 대해 불온한 언사가 오가고 이로 인해 일본 경찰 수 백 명이 도장에 주재하게 되었다.

1948년(무자) 설날 정산은 임원들에게 도명이 '태극도'임을 온 세상에 공표하고 현창토록 지시하고 주문의 무극도주를 '태극도주'로 고쳤다. 이어 훈시하기를 "우리 도의 개화와 낙화가 모두 태인 땅이었으니 태인은 '큰 씨'라 싹이 트고 자랄 연유이나, 꽃이 피었다 짐은 결실을 위함이니라.<하략> 하였다.

태인에 있던 무극대도 도장의 모습은 1936년 출간된 『정읍군지』와 국립전주박물관 『정읍특별전 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안으로 옮겨졌던 영대 건물은 최근 부안 동진면 당상리에서 발견되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이 건물은 단층이고 사찰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나무로 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층은 천장이 낮아 일어설 수 없게 축소 변형되었다.

보천교와 무극대도는 정읍과 태인에서 각각 자리잡고 일세를 풍미하였다. 이들은 1925년대에 증산의 뒤를 이어 각기 성대한 도장을 건립하였으나 1930년대 일제의 탄압으로 모두 성전 건물을 철거당하였다. 보천교가 차교주의 서거를 맞이한데 비해 무극대도는 조교주가 무사한 가운데 부산으로 이주하여 감천동 시대를 열고 교명을 태

극도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천동은 오늘날 영화 촬영지와 마을 재생 프로젝트에 의해 전국의 명소로 널리 알려졌다. 대지가 총 5,500여 평인 무극대도의 터는 여러 번 전매되어 학교,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모 종교 소유로 고물수집소로 이용되고 있다.(홍범초의 『범증산교사』와 태극도 홈페이지에서 요약/서혁기)

■ 강증산 탄생지(덕천면)

증산교의 교조는 강일순이다. 호가 증산이었으므로 강증산(또는 '강샷갓')으로도 불렀다. 본관이 진주, 본명은 흥주, 휘자는 일순이며 1871년 정읍 덕천면 객망리(현 신월리 신송마을) 시루봉 아랫마을에서 태어났다. 신송 마을은 황토현 사거리 300m 지점 앞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이다. 속칭 '손바래기'로 잘 알려진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강증산 성지 푯말이 세워져 있다. 탄생지에는 '강증산 상제 하강지'(姜甑山 上帝 下降地)라 쓰여 있고 방안에는 영정이 걸려 있으며 영정 좌우에는 태을주(吽哆吽哆太乙天上元君吽哩哆耶都來吽哩喊哩娑婆訶)가 걸려 있다.

증산은 한때(24세) 동학에도 뜻을 두어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북상하는데 공주까지 행군한 일도 있었다 하나 『대순전경』(大巡典經)에는 그 해 겨울철 동학군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망동치 말라고 효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증산은 30세까지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행한 결과 유·불·선을 토대로 한 '흠치교'라는 종교를 창시했다. 증산교는 그의 사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는 1901년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49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도를 닦아 드디어 우주의 조화 본능을 뜻대로 하게 되어 상제의 권능을 얻었다 한다. 이후 '옥황상제'로 칭하고 기행이적이 많았다.

증산사상의 핵심은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천지공사란 옥황상제의 권능으로 천·지·인 3계를 모순된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즉 천지운행 도수를 자기 손으로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동곡약방'(東谷藥房)도 이 같은 천지공사의 실현을 위해 세운 것이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듯이 그도 숱한 예언과 치병의 기적을 보여 주었다. 『대순전경』 치병조에는 앉은뱅이를 걷게 함은 물론이고 치질, 횟배, 폐병, 안질, 설사, 소한두통, 장병(長病), 급증 등 무려 60여 가지의 치병 사례가 나와 있다.

천지공사는 구체적으로 운도공사(運度公事), 신명공사(神明公事), 인도공사(人道公事)를 말하는 것으로 운도공사는 자연의 운행법칙을 바로잡는 것이며, 신명공사는 종교를 비롯한 정신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인도공사는 인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운도공사는 다시 액운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 지운공사로 나누어진다. 액운공사란 선, 후천이 바꾸어지는 시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재난과 액운을 모면하기 위한 공사다. 세운공사는 세계의 운도를 조정하여 상극투쟁에 빠진 인류를 상생상화하는 도로 대동단결케 하는 것이며, 교운공사는 자신의 교리를 펴고 발전시키는 공사를 의미한다. 지운공사는 각 민족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세계가 어지러운 것은 각 지방신과 지운이 통일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러나 증산사상의 핵심은 '해원상생'(解寃相生)이라 할 수 있다. 5만년 선천시대의 원한을 각자 풀고 서로 함께 살며 생명을 건지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한 지역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내세운 '생명사상'이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증산사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철학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불교, 도교, 유교, 주역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증산이 제시한 사상은 전 지구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정신사적.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증산은 천지공사를 행하던 1907년 어느 날 우연히 금구면 거야 주막에서 차경석(車京石)을 만나 입암면 대흥리로 오게 된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증산은 차경석의 이종매인 고씨 부인과 결혼하고 차경석에게 도를 전한 다음 1909년 전주로 이거했으나 그의 나이 39살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세상을 뜨게 된다. 바로 이 해가 보천교의 창교기원일이다. 강증산이 김제군 금산면 동곡리에서 39세로 요절한 다음 당시 문하의 신도들이 각기 분파하여 수많은 교파를 낳게 되었다.

증산을 교조로 하는 교파는 보천교와 금산사 경내 18단체를 비롯, 한때 80여개를 헤아렸다 하나 현재는 60여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보천교와 대순진리회가 대표적인 교파이며 이외에 선도교, 미륵교, 태극교, 태을교, 삼덕교, 무극도교, 대법사 등이 삼남지방에 산재하고 있다.

(사) 정읍역사문화연구소

부설 정읍근현대사연구회

전북 정읍시 학산로 89-36(상동 완당빌딩 202호)

고　　문-김종호(고려병원 원장/정읍문화사랑 회장)
명예회장-김방룡(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전 총장비서실장/유학연구소 부소장)
이 사 장-김재영(세계문화유산 전라북도 위원/도교육청 한국사교재 집필위원장/문학박사)
자문위원-이흥재(전 전북도립미술관장/정읍시립미술관장/문학박사)
자문위원-이창석(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자문위원/전 정주고등학교 행정실장)
자문위원-조인숙(창암이삼만서예술문화진흥원 이사장/철학박사)
자문위원-김승대(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 사무관/문학박사)
자문위원-김진돈(전라금석문연구회장/전북 문화재 전문위원/미술학박사)
자문위원-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명예회원-이병렬(공주대학교 외래교수/지리학박사)
명예회원-임장훈(전북일보 기자/정읍시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부이사장-이상섭(부설 정읍근현대사연구회 부회장/전 '얼'학회 기획총무)
부이사장-안후상(독립운동사전, 한국신종교 사전 편찬위원/문학박사)
연 구 원-곽형주(고사부리문화연구회장/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
연 구 원-박상주(원광대학교 외래교수/고수)
연 구 원-박경철(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지부 정읍지회원)
연 구 원-박경희(정읍근현대사연구회원/문화유적답사 모임 '면사고' 회원)
연 구 원-서혁기(피향정문화축제제전위원회 이사/극동소수력발전소 이사)
연 구 원-유진섭(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연 구 원-이진우(정읍통문 대표/사단법인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연 구 원-정원기(사단법인 '둘레' 연구원/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학예사)
연 구 원-이광윤(정읍경찰서/근현대사연구회 부회장)
연 구 원-오승옥(인쇄나라 집현전 대표/예원예술대 문화영상창업대학원 석사)
연 구 원-유종화(시인/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문화재 지킴이)
연 구 원-정금성(정읍N사람/지역활력연구소장/정읍시민공감포럼 대표)
연 구 원-정명성(유한회사 '차샘' 대표/불교학자)